

이주영 장관 사의 수용... '총리 + α' 개각 '초읽기'

박대통령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회복 인적쇄신 나설듯 시기는 내년초... 경제장관 교체·靑 참모진 개편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혀 정부 출범 3년차에 즈음한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아 개각과 청와대개편 등 인적쇄신을 단행함으로써 세월호참사와 문건유출 파문 등 여러로 멈춰선 국정동력을 회복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는 게 개각론이 부상한 배경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 참석을 끝으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로 해양수산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136일 동안 진도현장을 지키면서 온몸을 바쳐 사고수습을, 헌신하는 모습에 유가족과 국민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공직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나라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도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열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며 지금의 2기 내각을 출범시킨 것은 지난 6월이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외견상 세월호참사 수습이 마무리된 뒤 이래 수차례 표명된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다른 각료들의 분발을 주문한 원칙론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수용을 계기로 세월호참사를 가까스로 수습한 이래 비선실세 의혹을 낳은 문건유출 파문에 휘말린 뒤 정치권 안팎에서 쇄도한 인적쇄신론을 수용키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

기됐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정치권 등의 쇄신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귀를 닫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분이 제시하는 여러 쇄신안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제시하는 방안들, 고귀한 의견들에 대해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총리와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인

적쇄신 단행 가능성을 점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움직임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한 언급을 전제한 것이지만 개각을 포함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요청에 청와대가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5년 임기의 커다란 분기점이자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는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개각이 단행될 경우 시기는 내년 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 노동시장과 금융부문의 개혁, 통일준비 등 굵직굵직한 구조개혁 및 국가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

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기대이다.

대상으로는 우선, 이미 청와대가 세월호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총리후보자들의 연쇄낙마로 유임된 정홍원 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후임으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정치권 중진과 친박계 원로급 인사, 개혁적 외부인사 등이 거명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 여부도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주영 장관 사의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세종청사 완공식을 마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연남뉴스

여야, '부동산 3법' 처리 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3년 추가 유예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탄력 적용

여야는 23일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다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 서민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복지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측이 맡고, 6개월간 활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고, 오는 24일 열린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4대강 조사결과 놓고 충돌 "국조해야" VS "정치공세"

23일 4대강 일부 보(墩) 아래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됐다는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일부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전체적인 조사 결과는 알맹이 없는 속 민 강정이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조사위원들은 4대강 사업에 집중·동조했던 이해관계 학회 및 기관 출신자들로 중립성을 의심받았다"며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발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대규모 물고기 폐사 원인과 썩어가고 있는 하상토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보의 안전성 조사가 물받이 공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정수장 안전과 수질 조사결과 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4대강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조사 결과에 대한 정치 공세 자체를 요구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조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주무 부처가 철저히 보완하기를 바란다"면서 "4대강 사업을 정경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국조 주장을 일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당권 경쟁구도 막판까지 혼전

정세균 '숙고'... 문·박은 이번주말 출마 선언 시사 안희정 충남지사 '빅3' 불출마 요구·서명파도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경쟁 구도가 후보 등록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정세균 의원이 당권 도전과 관련 '숙고' 입장을 밝힌데 이어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빅3(문재인, 박지연, 정세균 의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당권 경쟁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정세균 의원은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 당대회가 두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대결,

호남 대 영남이란 구시대적 대결 구도로 짜여진다면 갈등과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의 통합과 재건, 그리고 혁신의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보기에 따라선 문재인 의원과 박지연 의원에 불출마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 의원 자신이 불출마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정 의원이 불출마 결단에 나선다면 문재인, 박지연 의원의 출마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전체적인 당권 구도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의 '빅 3' 불출마 요구와 관련, "평소에 안희정 지사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지난 21일 충남권 지역위원장들의 송년 모임에 참석해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빅 3'의 전대 불출마를 요구하는 서명파 의원들의 압박 수위로 고조되고 있다.

주말까지 추가 서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빅 3'에 맞설 수 있는 특정 후보 지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빅 3' 가운데 한 명이라도 불출마를 결단한다면 당권 구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박지연 의원은 이번 주말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전남 방문 당시 밝혔듯이 당의 혁신을 위한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주말을 전후해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관계자도 "정권 창출을 위해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는 강고하며 이번 주말 즈음에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충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텝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부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층 70m 최신편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전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아는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